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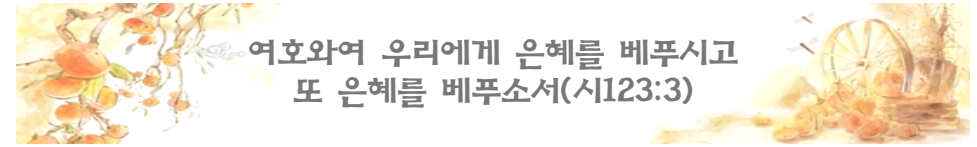
추석감사예배

추석감사예배를 통해 올 한 해도 사랑과 공화로
우리를 돌보신 삼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신앙고백	다	같	이	
찬 송 287장	다	같	이
기 도	말	은	이	
성경봉독 시편 123편 1~4절	말	은	이
말 씀 “시편이 가르쳐 주는 기도”	말	은	이
찬 송 383장	다	같	이
주기도문	다	같	이

시편 123편 1~4절

¹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² 상전
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 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
종의 눈 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³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
치나이다 ⁴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
에 넘치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시123:3)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1.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2.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맘에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3.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후렴.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1.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 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2. 도우시는 하나님이 네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네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제목: 시편이 가르쳐 주는 기도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혹은 각자 사정으로 아쉬운 비대면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추석 만남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만, 지금 당하고 있는 시절로 인해서 마냥 기뻐하기 힘듭니다. 코로나 19로 교회와 가정 그리고 사업장이 다양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어려운 시절에 우리 가족은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을 통해 기도를 배우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해야 합니다(1절). 기도의 첫마디는 매우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시인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1절에 “하늘에 계시는 주여”, 즉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고백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 주권자이십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주권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덕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할 자격 없는 우리를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해야 합니다.

2) 우리는 종과 같은 태도로 간구해야 합니다(2절). 시편은 기도하는 태도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절에 한 폭의 그림같은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과 종의 비유입니다. 종은 자세를 낮추고 무릎을 꿇고, 주인의 손을 바라봅니다. 그 손은 권위와 권세와 능력이 담긴 주인의 손입니다. 종의 모든 필요, 먹을 것, 쉴 곳, 입을 것을 채워주시는 손입니다. 종은 두 눈 가득히 신뢰를 머금고 주인의 손을 붙입니다. 종은 주인의 성품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손은 때리는 손이 아닙니다. 회복시키시고 보호해주시는 손입니다. 과거에 주인은 자신의 명예를 걸고 종들을 지켜주었습니다. 종은 경험에서 나오는 신뢰를 가졌습니다. 변함없으신 주인을 신뢰하며 긍휼을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주인과 종의 비유를 통해서 기도하는 자세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의존과 신뢰입니다. 우리는 종이 선한 주인을 의지하고 신뢰하듯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3) 우리는 멸시와 조소를 당하는 교회를 위하여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3-4절). 3, 4절에 안일한 자와 교만한 자가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멸시했습니다. 악한 자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높임 받는 자들입니다. 악인들은 자기 영광에 도취하여, 하나님 나라를 무시했습니다. 이러한 악인들은 역사 속에 늘 있었고,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이들은 시대의 흐름에서 성공한 사람이며,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방해하고,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 비웃음과 멸시는 교회에 큰 고통을 줍니다. 우리는 고통 중에 있는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푸사 우리 교회가 멸시와 조롱 속에서도 더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가정과 개인 기도제목을 가지고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 추석명절 가정예배



포항대흥교회